

교직원, 8월 내 화이자·모더나 맞는다... 개학전 접종 완료

2학기 등교 위해 종류·시기 변경
수험생 접종시기 미정... 화이자 유력
14일부터 수도권 등교 수업 확대

당초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7월로 미뤄져 다른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함께 이뤄진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1·2차 간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으로 바뀌면서다. 고3 등 수험생의 접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6일 교육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직원과 돌봄인력 접종 계획을 일부 조정해 다른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과 함께 여름방학 중인 7월 접종을 할 계획이다.

앞서 유치원·어린이집·돌봄 종사자와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 38만명은 7일부터 먼저 접종을 시행하고 나머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2시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시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1차 접종했다. /교육부

교사와 고3은 여름방학 전후로 학사일정을 고려해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었지만 접종 일정이 바뀌었다. 앞서 지난 4월 12일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직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처럼 접종 시기가 7월로 연기된 것은 교육부가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이에

따라 백신 종류도 바뀐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2차 접종 간격이 길어 항체 형성시기까지 고려하면 2학기 등교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AZ 백신은 1차 접종 12주 후 2차 접종해야 해, 예정대로 7월부터 19일까지 1차 접종을 하면 8월 말에서 9월 초 2차 접종 시기가 된다. 항체 형성은 2차 접

종 2주 뒤인 9월 중순에야 이뤄지기 때문에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반면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 3주, 모더나는 1차 접종 4주 뒤 2차 접종이 가능해 2학기 전면 등교 일정상 무리가 없다. 2학기 전면 등교가 실제로 이뤄지면 교내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게 된다.

이번에 접종 계획이 변경된 대상은 만 30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이다. 30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은 예정대로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보건·특수교사 중 만 30세 미만도 같은 기간 접종할 수 있다.

고3과 재수생을 비롯한 다른 수험생의 경우에는 아직 접종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단, 고3은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단장(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고3은

17~18세가 섞여 있을 수 있어 허가 사항을 반영해 화이자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직원은 mRNA 백신 가운데 하나를 접종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7월 고3 대상 기말고사 기간을 피하고 학사 운영 일정을 고려해 접종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안내했던 AZ 백신 접종 사전예약에서 신청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오는 9월 국민 1차 접종이 진행된 이후 접종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오는 14일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거리 두기 2단계인 수도권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밀집도 기준이 완화된다. 실무 교육이 필수적인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중앙대, 연구비 70억 수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항암제·신경재생 의약품 개발 연구
한국연구재단-기초과학지원연구원

중앙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70억여 원의 연구비를 수주하게 됐다.

중앙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명단에 약학대학 약학연구소가 이름을 올렸다고 6일 밝혔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핵심이 되는 대학의 학술·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교육부 등은 대학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1980년부터 우수한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해 왔다.

중앙대 약학대학 약학연구소는 ‘히스톤조절 단백질 기반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및 글로벌 의약품 인재 양성’을 연구목표로 제시해 사업에 선정됐다. 최대 9년간 70억여 원의 연구비를 수주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후성유전학 바탕의 항암제 및 신경재생 의약품 개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구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한 데 더해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이 우수하고, 우수한 연구시설을 확보했기에 중앙대 약학연구소가 이번 사업에 선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현진 기자

디지털서울문화예대, 시니어모델 전문가 양성

정규 4년제 대학교 최초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모델학과가 고령화 시대 유망 직업인 시니어 모델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며 이색학과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패션과 뷰티뿐 아니라 다방면 분야에서, 시니어 고객층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시니어 소비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전략적 마케팅을 위해 동일한 연령대인 시니어모델을 광고 모델을 광고 모델로 선정하고 있다.

시니어모델 시장은 각종 패션쇼, 광고계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삶의 여유와 흔적을 지닌 시니어모델을 찾는 대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문인으로서의 역량과 스킬을 갖춘 시니어모델의 역할과 중요성이 현대사회에서는 점차 증대하고 있다.

서울문화예술대 모델학과는 패션모델, 광고모델 등 여러 분야의 전문 모델 양성 학과이며, 특히 전문 시니어모델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모델학과가 고령화 시대 유망 직업인 시니어모델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며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을 양성하는 학과로는 정규 4년제 대학교 최초다. 또, 시니어모델뿐 아니라 시니어모델 교육자, 시니어이미지메이킹 전문인, 시니어 문화예술 전문인 등을 양성하기 위한 특화된 학년별 커리큘럼을 통해 졸업 후 진출 가능한 진로의 방향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현진 기자

교육부

미래학교 가상설계 공모전

교육부는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학생, 교원, 일반인 등이 미래학교 공간을 가상설계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하는 등 미래학교 조성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최한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 학교건물 2835동을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형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공모전은 ▲가상설계 분야 ▲영상콘텐츠 분야 ▲교수학습설계 분야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참가는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 참여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순천향대, 한국상품학회 ‘최우수논문상’

최재원 교수-석사과정 흥쯔영씨

순천향대학교는 최재원 경영학과 교수와 경영학과 석사과정 4학기 흥쯔영 씨가 지난 5월 숙명여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년도 한국상품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최우수논문상으로 선정된 논문 ‘ASMR 마케팅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미치는 에코 챔버 효과 탐색: 텍스트 마이닝 관점’은 유튜브에서 ASMR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에 대해 콘텐츠 사용자가 느끼는 효과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확인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ASMR 인플



최재원
경영학과 교수



흥쯔영씨
석사과정 4학기

루언서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예측분석을 수행했다. 연구결과, 일반적인 유튜브 리뷰 콘텐츠와 비교해 ASMR 인플루언서의 광고 영향력이 효과적임을 확인, 시장 전략을 새롭게 제시했다. 특히 유튜브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증명함으로써 광고 효과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현진 기자

아주대, 과기부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총 13억7500만원 연구비 지원

아주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도 집단연구지원사업 기초연구실 신규 과제’에 공과대학과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 소속 6개 연구팀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팀은 기본 3년 동안 연간 5억원 이내, 총 13억75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아주대에서는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와 ▲원자 수준 계면 제어 극한 비선

형광학 연구실(염동일·이형우·서호성·이재용 교수) ▲바이오 소재 기반 광전 인공신경 연구실(김성환·박지용·윤종희 교수) 2개 팀과, 공과대학의 ▲고선택도 하이드로카본 업사이클링을 위한 고체 표면 흡탈착 제어 연구실(조인선·안병민·류학기 신소재공학과 교수, 이제찬 환경안전공학과 교수)팀이 선정됐다.

정보통신대학의 셀프믹싱 센서용 표면 방출 박막 레이저 연구실(김상인·이재진·오일권 전자공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현진 기자

한양대

클라우드 분야 창업인재 양성

한양대학교가 창업융합전공 재학생과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비즈니스모델’ 창업강좌를 개설하고 클라우드 분야 창업인재 육성에 나섰다.

6일 한양대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설된 창업강좌 ‘클라우드비즈니스모델’은 클라우드 기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창업기회 탐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한양대는 국내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서비스기업 메가존 클라우드(주)의 윤준선 CSO(최고전략책임자)와 자동차 서비스에 특화된 플랫폼 서비스 기업 (주)오토카지의 김현희 부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이현진 기자